

蛇曲劍에 대하여

全榮來

I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蛇曲劍이란 말은 아직 귀에 설다. 그出土例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一九七二年 四月 全北任實郡館村面金城里에서 이가 埋藏遺物發見申告書에 包含되어 내가 이를 「全北遺蹟調査報告」(第三輯)에 紹介한 바 있다. ① 이로써 從來에 日本의 獨創的인 것 이라고만 믿어왔던 先入觀을 뒤엎고, 韓日古代文化交流에 또 하나의 資料를 提示한 셈이 되었다.

여기에서 日本의 몇몇 出土例와 從前의 見解를 紹介하고, 이와 對比하면서 그 機能과 文化史의 意義를 若干 살피보려 한다.

鐵劍은 鋒部를 除外하고는 거의 直線의인 兩刃을 가지고 있고, 左右對稱인 劍身斷面은 扁菱形 또는 凸렌즈形이며 關節에서 좁혀져 莖部에 連結되는 것이 通例인데, 이는 銅劍의 模式을 踏襲한 것이다.

이러한 鐵劍이 鍛造技術의 發達에 따라 차츰 長身化되고, 그중에 劍身이 S字形으로 蛇行하는 것이 出現하게 되는데 日本에서 蛇行劍・蛇曲劍, 또는 曲身劍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II

日本에서 最初로 蛇曲劍이 發見・紹介된 것은 石川縣所在 「狐塚」에서

nuzuke古墳의 發掘品調査報告를 行한 後藤(Coto)守一에 의해서였다. ② 鐵劍・狹鋒鉞身・刀子 등과 함께 出土된 이곳의 蛇曲劍은 길이 約二七cm로 一曲되었는데, 報告者는 이를 長柄끝에 金具로 附着시킨 鉞身으로 看做하였다. 그러나 古墳時代의 鐵製鉞身은 袋(插柄孔)가 있는 銅鉞의 模式을 따른 型式이 奈良・平安時代까지 계속되므로, 이러한 有莖劍身을 곧 鉞身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大勢에 背馳되어, 架空의이란 批判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自信없는 但書를 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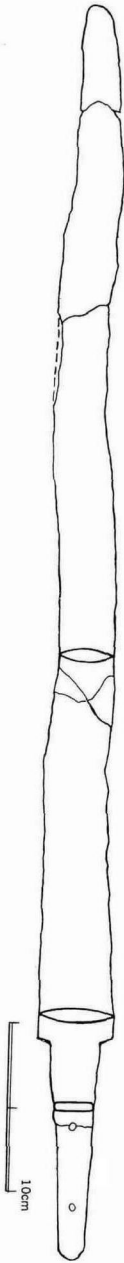
一九六五年度에 이르자, 長野縣下 「フネ」(Hune)古墳을 發掘報告한 藤森(Hujimori)榮一은 二口の 蛇曲劍에 言及하였다. ③ 이곳 出土品은 長이가 現長七二・五cm와 六八cm로서, 缺落鋒部를 復元한다면 共히 七五cm內外로 推算되는 長劍에 屬하며, 蛇曲도 完만하진 하지만 四(五)曲으로서, 이를 前者인 「狐塚」古墳出土品처럼 長柄끝에 附着시킨다는 것은, 到底히 想像할 수 없게 되었다. 「藤森」은 이에 言及하여, 「本例의 見本은 劍身の 길이로 미루어, 長柄鉞보다는 「七觀」古墳出土例와 ④ 같이 劍으로 使用되었으리라」라는 생각이 機能的으로 合當하다고 말하였다. ⑤

「藤森」은, 이 蛇曲劍의 出土例가 稀少하다는 理由로, 七支刀에서 ⑥ 그 「아이디어」를 딴 「神器的인 渴望의 所産인 武威具」일거라는 推論을 展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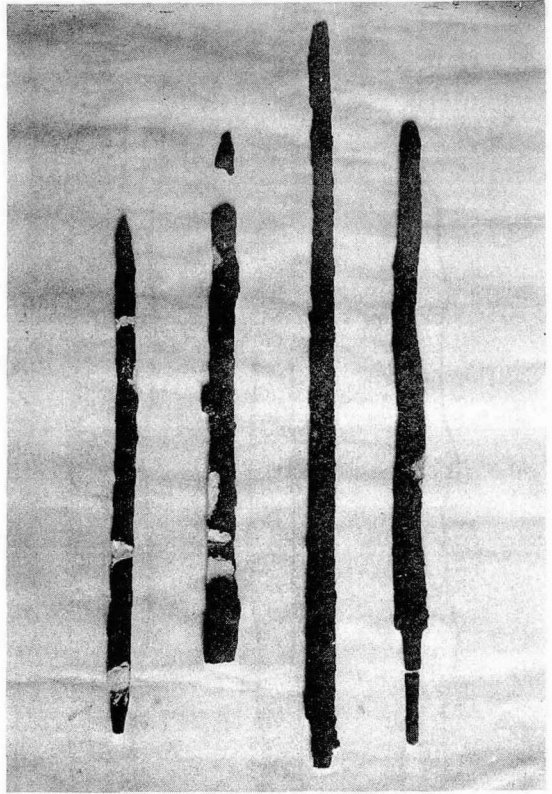
III

그런데, 興味있는 일은, 數年前 日本의 栃木(Tochiki)縣小山(Koyama)市에서 골프場工事中 發見된 桑(Kawa)五七號墳에서 特異한 蛇曲劍이 出土되어 歷史學者인 井上光貞氏가 「七支刀의 一種인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新聞에서 크게 떠들었던 일이 있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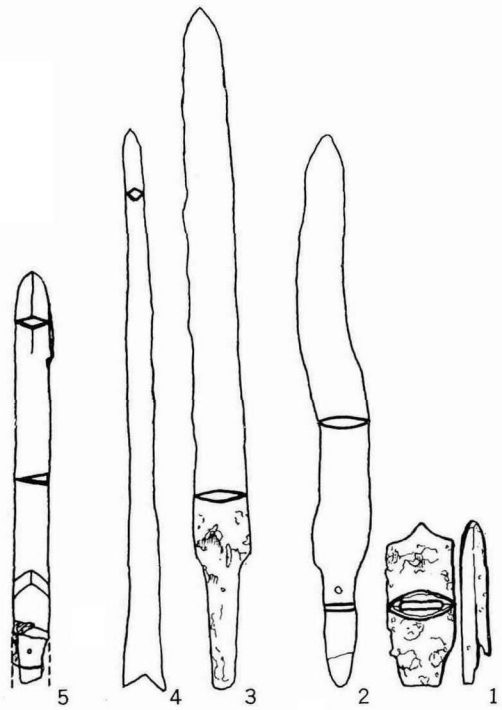
一九七二年에 나온 同古墳發掘報告書에 依하면 ⑧ 이 出土劍이 從來의 蛇曲劍과 다른 點으로서 ① 劍身兩側이 弧의 連續으로서, 蛇行部가 三角으로 角이 저서 突出되어 있고, ② 劍身基부와 莖部까지 함께 彎曲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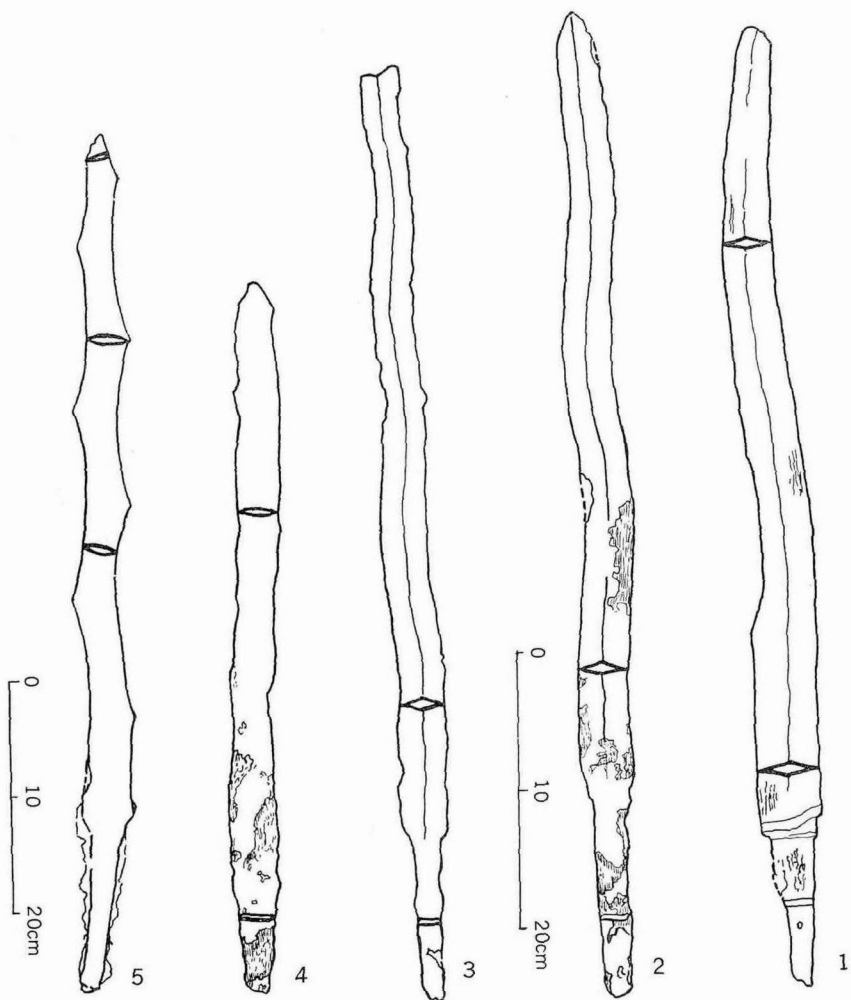
圖一 任實金城裡出土曲土蛇劍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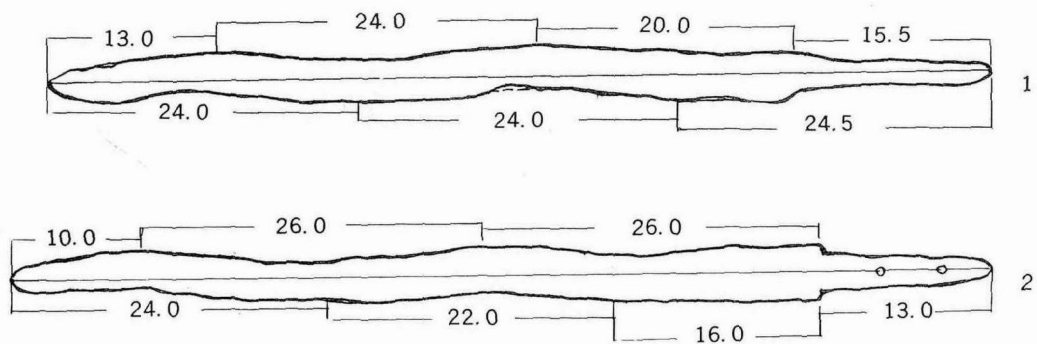
任實金城裡石室墓一括力劍類 右端の 蛇曲劍



圖二 日本「狐塚」古墳出土蛇曲劍 及 一括武器
(一・二・三・四)「南原」古墳出土變形劍(五)



圖三 日本「龜山」古墳出土蛇曲劍(一)
 日本「フネ」古墳出土蛇曲劍(二・三・四)
 日本「桑」五七號墳出土蛇曲劍(五)



圖四 蛇曲劍彎曲值計測圖 一은「フネ」古墳出土, 二는 金城里出土

어 있고, ③ 칼끝은 直刀와 같이 한쪽만이 刃으로 되어 있는 것이 指
 摘되고 있다. 그러나 細密한 分析結果, 七支刀의 「間接的影響의 可能性
 은 否定하지 못할만정, 直接的模倣說에 대해서는 慎重히 檢村되어야 한
 다」고 結論짓고 있다.

지금까지의 日本에서의 出土例를 綜合表示해보면 다음과 같다.

古墳名稱	出土數	길이 (cm)	彎曲數	年 代
① 石川縣狐塚古墳	一	二七・〇	二	五世紀後半
② 長野縣フネ古墳	二	七二・五(缺) 六八・〇(缺)	五四	四世紀末
③ 京都府南原古墳	一	二〇・〇	一	四世紀
④ 兵庫縣龜山古墳	二	七〇・六(缺) 三一・二(缺)	一三 (殘)	五世紀後半
⑤ 大阪府七觀古塚	二	七〇・〇 六三・五	〇	五世紀前半
⑥ 宮崎縣牧の原二號墳	一	四七・〇	五	—
⑦ 栃木縣桑五七號墳	一	七三・〇	七	六世紀前半

右表中、南原(Minamiyara)古墳出土品은, 劍身이 直刀처럼 一側이 棟,
 一側이 刃部로 되어 있고, 鋒部만이 中央에 稜이 있고 兩側에 刃이 있는
 劍型鋒部를 가진 異型으로서 嚴密히 말해서 蛇曲劍의 範疇內에 넣을 수
 있는 性質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日本에서의 蛇曲劍의 流行期는 거의
 四世紀末에서 五世紀末에 이르는 竪穴式石室墳에서 出土된 것들이다.

IV

그러면, 내가 既報한 任實金城里古墳出土蛇曲劍에 대해서, 日本出土
 品과 比較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本品은 總長七五・〇cm,
 中莖部길이가 一三・〇cm이고, 劍身の 元幅은 四・三cm, 稜厚 一・
 〇cm, 中間에 가면서 幅三・五cm, 厚〇・八cm로 차츰 줄어들었고 鋒部

에 가서는 幅은 二・二cm以下로 떨어진다.

關에서는 兩區가 거의 直角對稱으로 꺾이며, 莖部에 接續되는데, 莖
 根幅二・八cm, 莖도 尾端에 가면서 차츰 幅과 厚가 줄어들어 幅一・六cm,
 厚〇・三五cm以下로 떨어지며, 尾端部는 等하게 다음어졌다. 莖에는 두
 개의 目釘孔이 뚫려 있다.

蛇曲한 狀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莖部의 目釘孔과 關部中
 央을 連結시키는 正中線을 鋒先까지 延長시켜보면 四曲劍임을 알 수 있
 으며 身元과 莖部만을 놓고 볼 때는 直線의인 左右對稱으로 有莖銅劍
 또는 鐵劍과 다름없다. 關根에서 一六・〇cm 올라간 곳에서 第一彎曲部
 가 있는데, 이는 正中線에서 約〇・六cm 偏曲해 있다. 第二彎曲은 第一
 曲의 反對側面 關根에서 二六・〇cm 올라간 곳에서 約〇・七cm 偏曲되
 었다. 第三彎曲은 第一曲에서 一一・〇cm 올라간 곳에서 約一・一cm 偏曲
 되었다. 第四彎曲은, 第二曲에서 二六・〇cm 올라간 곳에서 約〇・五cm
 偏曲되어 있다. 鋒部는 第三曲에서 二四・〇cm 올라가면, 한쪽으로 偏
 曲되었으나 鋒先만은 正中線상에 있다. 이렇듯 一側의 彎曲距離가 莖長
 一三cm의 幅二倍인 二六・〇cm씩 두번 反覆하는 것은 相當한 規格化가
 考慮되었음을 推定케 한다.

日本側出土劍과 若干의 比較를 해본다면, 첫째 길이에 있어서 長野縣
 「フネ」古墳劍의 七二・五cm와 六八・〇cm 兵庫縣「龜山」(Kame Yama)
 古墳長身劍의 七〇・六cm 등이 모두 鋒部缺落된 것이므로 그 復元値는 大
 略이 金城里劍의 七五・〇cm와 莫上莫下の 것이 될 것이며, 「七觀」古墳
 劍의 七〇・六cm도 大同小異한 것이다. 이러한 劍의 長身化는 三〇~
 五〇cm 未滿의 鑄造銅劍이, 鍛造鐵劍으로 바뀌면서 可能해진 것으로 보
 인다. 彎曲數도 金城里의 四曲은 「フネ」古墳劍의 四曲乃至 五曲과 가
 장 卑近한 것으로서 이 金城里石室墳의 編年에 再檢討를 要하는 點이라
 하겠다.

둘째로, 特異한 關部의 兩區가 거의 直角이며, 左右對稱으로 꺾였
 다는 點이다. 이러한 特徵은 有莖銅劍乃至 鐵製直劍의 特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日本側 蛇曲劍의 關根處理法과는 다르다. 「狐塚」 「フネ」古墳 등의 出土劍이 모두, 緩漫한 弧를 그리며 莖部로 縮約되어가는데, 다만 「フネ」古墳의 一例에서는, 한쪽區는 直角으로, 한쪽區는 弧形으로 縮約하고 있는 것은 注目된다. 「龜山」古墳劍이 若干 直角으로 處理된 듯 하나, 左右對稱은 되지 못하므로 大勢는 直角對稱兩區에서 弧形・直角의 折衷區로, 다시 弧形兩區로 移行되어 갔다고 보아도 無妨하겠다.

V

마지막으로 蛇曲劍의 發生을 機能面에서 若干 考察해 보려 한다.

위에서 言及한 것처럼 「後藤守」은 一九三七年度에 「狐塚」古墳의 蛇曲劍을 莖部에 附着되는 金具와 함께 長柄槍鋒의 鋒身으로 推定하면 서도 自信있는 斷案을 내리지 못하였다.

一九六五年度 「フネ」古墳에서 多曲長身劍이 出土되자, 報告者인 「藤森榮一」은 前記한 長柄槍鋒說을 否定하고, 劍으로 보았으며, 蛇曲된 理由에 對해서는 「機能面」으로 보아 刺傷口가 擴大되어 몇 겹인가, 더 큰 身幅의 劍과 同一 效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一般實用化되지 못함으로써, 七支刀에 對한 神器的 渴望에서 齎來된 造型이라고 推定하였다.

그러나 韓半島의 日本에 進出한 加耶文化圈속에서 同類型的의 蛇曲劍이 發見됨으로써, 그 祖型이 이미 韓半島南部에서 定型化되었고, 따라서 七支刀 模造說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蛇曲劍의 發生은 鐵劍에서 鍛造直刀가 定型化되기까지의 暫定的 過度 現象으로 看做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鍛造技術의 發達에 따라 片刃長刀의 出現은 從來의 劍樣式을 固守하는 保守的 部類들에 있어서 는 一大威脅이 아닐 수 없었다. 在來型式을 固守하면서 斬擊用인 直刀와 對決하는 效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鐵劍을 長身化하거나, 長柄槍鋒으로의 轉用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특히 劍인 同時에 斬擊用의 效能을 考慮한 것이 「南原」(minamiyara) 古墳出土品처럼 直刀尖端에 劍鋒部를 附着시킨 것 같은 奇妙한 變形劍이 出現하였다.

나아가서 萬若 敵手의 直刀의 斬擊을 劍으로 防禦하기 위해서는 直劍보다는 曲劍의 彎曲部로 받아내는 것이 훨씬 便利하고, 直劍인 경우, 敵刀가 미끄러짐으로써 發生하는 把手의 負傷도 막아내기 容易했을 것이다. 이러한 證據로 蛇曲劍은 거의가 第一乃至, 第二彎曲部의 側刃이 甚하게 缺傷되고 있음을 看取할 수가 있다.

이러한 機能은 遼寧式銅劍의 刃部가 S字形으로 굽어, 中間에 突起가 있는 形態를 두고도 말할 수 있겠다. 蛇曲劍과 對比할 때, 遼寧式銅劍은 袂入部가 左右對稱이라는 點만이 다를 뿐, 그 機能은 同一한 意匠에 起因한 것이다.

却說하고, 蛇曲劍이 在來의 片手劍把를 兩手劍把로 하기 위해서, 莖部를 一三cm以上으로 延長시킨 것도 兩手用直大刀와의 對決에서 不可避한 改良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刀劍의 革命은 劍으로부터 鍛造長身直刀의 定型化와 함께 把手를 保護할 수 있는 鐔部의 機能도 發展함으로써 이러한 過渡의 現象은 止揚되어 갔을 것으로 보아진다.

VI

어쨌든 任實金城里堅穴式石室墓의 蛇曲劍은 日本古墳前期後半에 發生하는 同類鐵劍의 祖型이 韓半島에서 定型化되었음을 證明하므로써 韓半島와 日本前期古墳文化를 連結시키는 또하나의 資料로서 그 文化史의 意義를 再評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金城里古墳에서는 鐵製大刀・廣鋒鐵鉞・細形鐵鉞・鎌身・馬具銜, 그리고 長頸壺・壺類・高杯 등이 伴出되어 그 標式遺物을 通해서 五世紀後半의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古墳과 對比해 볼 때, 蛇

曲劍의 製作年代 自體는 五世紀前半으로 遡及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註)

- ① 全榮來：「任實金城里石槨墓群」全北遺蹟調查報告 第三輯(一九七四·一一·全州) P·二四
- ② 後藤守一：「第七加賀國江沼郡勅使村字二子塚所在狐塚」古墳發掘調查告(帝室博物館一九三七) P·五九一六一
- ③ 藤森榮一·宮坂光昭：「諏訪上社フネ古墳」考古學集刊三一(一九六五) P·六一一六三
- ④ 樋口隆康外：「知泉國七觀古墳調查報告」古代研究二七號
- ⑤ 注③ 所引書 P·六三
- ⑥ 七支刀는 西紀三六九年、百濟王이 倭國王에 贈與한 것으로、日本の「石上神宮」에 所藏되어 있는데、다음과 같은 金象嵌銘文이 有名하다。「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鐵]七支刀[世群百兵宜供供候王]□□□□作」「先世以來未有比刀百濟王世[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泰和四年은 近肖古王二四年에 該當한다。
- ⑦ 穴澤和光：筆者에 보낸私信에 依함
- ⑧ 大和久震平：「桑五七號墳發掘調查報告書」栃木縣小山市教育委員會(一九七二) P·四八 P·六八一七〇
- ⑨ 이 偏曲値는 彎曲部の 前後最大突出點을 連結한 直線에서 彎曲刀邊까지의 間隔을 말한다。
- ⑩ 尹武炳：「韓國青銅短劍의 型式分類」震檀學報一九·三〇合號(一九六六·一二) P·四三
- ⑪ 朝鮮古文化綜鑑一、龍岳面上里出土鐵劍參照
- ⑫ 注② 所引書、P·六一
- ⑬ 注③ 所引書 P·六三

- ⑭ 金元龍：韓國考古學年報(二)一九七四年度(一九七五·五月·서울) P·六八
- ⑮ 關野雄：「中國初期鐵器文化의 一考察—銅鐵過渡期의 鮮明に寄せて—」中國考古學研究(一九六六·東京) P·一七二 P·二〇〇
- ⑯ 梅原末治：「乙訓村長法寺南原古墳의 調査」京都府報一七(昭一一、京都)小林·水野：考古學辭典(創元新社·昭三九) P·六八五
- ⑰ 注① 所引書、P·二四一—二八

(전주 박물관장)